

이글을 쓰면서 1

폐암을 이겨나가는 76세의 경비원 선생님 3

쉐이시 경찰국장의 간 암 4기 21

유방암 4기 골반전이 34

폐암을 이겨나가는 76세의 경비원 선생님

59세까지 선생님이로 일을 하다가 퇴임을 한 리쫡학 선생님이 이야기

권대희

중국 시안에서 ## 폐암을 이겨나가는 76세의 경비원 선생님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 신들이 많은 약을 복용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저렴한 약 값과 국가 생활 보조금 그리고 퇴직 연금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급이 되어져 그나마 한국처럼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59세까지 선생님이로 일을 하다가 퇴임을 한 리쫡학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40년간 학교에서 근무를 하던 리 선생님은 퇴임 후 5~6년간은 소일거리를 하다가 집 근처에 유치원이 생기면서 그곳에 경비 비슷하게 재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던 선생님이요, 특히 학교경력이 있어서 유치원 경비로 다시 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임 이후 다시 평소 했던 일과 관련되는 업종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늙었다고 62세 전에 냉혹하게 몰아내는 경쟁 사회는 아직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노후를 걱정하면서 일자리 찾으려고 돌아 다니는 무책임한 사회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리 선생님은 저의 후배의 아버님으로 1년에 1~2회정도 상견례가 있는 사이입니다. 리 선생도 저는 친분이 있어서 가끔 병원에 들러서 건강 상담을 받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한국 형님 ! 병원에 계시나요?”

“쇼리이군.......병원에 있네”

“그러면 저와 아버님이 오후 2시에 방문 하겠습니다”

“알겠네....언제든지 환영하네”

중국 중의 병원의 특징은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의의 원칙은 “양생=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무조건 오침을 할 수 있는 2시간의 점심시간을 줍니다. 대형 중의병원(대학병원 규모)에 가도 동일하게 관리를 합니다. 저 또한 30분간 “장자와 공자”님들을 만나는 맛깔스러운 오침을 즐기고 일어나서 오후 진료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병원에 도착 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 되나요?”

“올라오세요”

리씨 가족과는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가지고 들어오는 녹차 잔을 앞에 놓았습니다. 반가운 얼굴과 다르게 이

선생님께서는 CT사진을 돌려이었습니다. 좋고 시간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씩 장을 잡았지”

“리 선생님. 저에게 사진을 주시겠나요? 그리고 의사소견서도 주시고요” “그리고 퇴임하고 변화도

성격자체가 조용한 분이어서 말없이 진찰 서류들을 넘겨주시고 앞에 놓여있는 차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진과 소견서를 보면서 “폐암 그것도 소 폐포 암의 3기”라는 의사소견서를 읽고 자료들을 다시 넣어서 리 선생님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는 리 선생님을 보면서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잠시 진료시간이 2시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환자분들은 다른 닥터에게 진료를 부탁하고 저는 다시 리 선생 앞에 앉았습니다. “없는데…….”

저는 진료실에는 진료하는 닥터 책상 말고 환자와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작은 소파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 듣고 있던, 쇼 리가 대화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리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지 않았나요?” “저의 아버님이 매일 동쪽에 있는

쇼리 말에 이 선생님은 약간 변명 하는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 때는 늘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공무원 때는 늘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퇴임 이후 새로운 유치원에 출근 전까지…약 10년 이상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지” 중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절약정신(?)이 너무 뛰어나서 돈 들어가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보험이 없으면 정기 검사는 개인 부담이기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흉부CT 한번 검사하는데 인민비 8000원(한화 150만원)정도 입니다. 한달 월급이 3~4000원(한화 70~80만원)정도 계산을 하면 치료비가 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몸 전체 검사하려면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나이 들면 놀려 다니는 것이지……”

“지금 담배를 피우시나요?” “피우신다 공계라고……매일 피우니까……그러다 담배를 마파우

“학교에 일 할 때는 조금 피웠는데…퇴직하면서 공터에서 노인들과 놀면서 10년간 피운 담배가 일하면서 40년간 피운 담배 보다 많았던 것 같네, 집에 노는 것이 건강에도

겟나요.“**홍색물에서 뽀아 뽀아 쇠사슬인가요 뽀아 뽀아**”판시였으니까,금까찰에서 뽀아 뽀아

나를 쳐다 보면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책망하듯이 이야기 하는 소리를 보면서 저는
살짝 웃으면서 리 선생님을 보면서 말을 건넵니다. “맛있는데…….” “아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소리조차 지를 알겠어요?” “아……. 그러네요. 알겠어요. 저를 훈련시켜주세요.”

“알았습니^다! 세먼자를 가져올게요!” 요리아는 이쁜 정의를 챙기고 열쇠를 달았습니다. 미제는

“저는 리 집안 사람들이 공자의 고향 ‘제남’에서 살다가 와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술^{모수}이라 부를 겁니다.”……………말하자면 **효도왕**이니 **자랑**이 심하니 **비비**에 먼저

“과찬의말씀입니다.”그물은발전소에서냉각탑과분진울거름물을천에방류하기전에모아

“제가 폐암과 직접적인 상관없는 생활습관 등의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암에 발병 원인을 찾아내면서 근본적으로 암의 진행을 차단 하면서 암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습관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에 이해 된다는 표정으로 이선생님이 말을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집에 있으면 심심도 하고 낯시터에 가면 친구들과 마작하고 술도 한잔하고 해서... 편안하게 담배도 피고... 사실 집에서 담배 피우기가 어렵거든. 집에는 아들도 손자가 없어선치 못해서... 입니 다래금속담이 쪼지관해 명하께 있는데..... 낯시하거 병어를 “그리고요... 잡어 사용으로 용한말 다래금속담성물장어부대 암살장을 제하것을선으로로름을

“정말 인생이 너무 무료해... 그래서 유치원에 출근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무료해서,
온두랑후부터 세타에... 자야 하는데 잠을 못 드니까... 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호사! **비밀**이 소위 ‘양가’요?”……………“그럼 **비밀**은 언제든 될까? 아니 **비밀**은

“어~~어떻게왔어?” 발전소에 서영하를 어장에는 **수심 100m** 정도 떨어진 거대한 계에서
“아이쿠~~나오는 중 속과 세면지를 **바다**라 불렀다 불려서 **바다**에 빠졌어...!”

“왜~~~~~그리고 지역 문제가 좋은데, 곳에서 좀 더 알아가시면서 사뵈우고...중금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감과 그로 인한 성적 열거... 그리 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감 신경이

“암 진단받고 바로 끊었네... 그런데 술도 먹지 말아야 되나?” 발달한 삶의 꼼꼼한 스타일

“네~~~~술도 안됩니다. 또 조용하게 누워 있으시고 선생님께 숙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와

“알겠네... 오 휴 간부께 주시겠네 선생부인께서 얼굴 표정 잘 아가 있었습니 다 매 그 뻔 말로

“그리고 고기단백질과 우유, 설탕. 들어간 음식은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자연 식품만
가능 합니다. 할 수 있죠?” 던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꼭 하겠네...”

“그리고 죄송한데... 물어볼 것이 더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구요.....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 입니다” 잠시 후 감고 있던 눈을 뜨면서 선생님이 말을 시작 했습니다

“물어보게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3가지가 있네. 첫번째는 교직생활을 40년 하면서 학

“아버님의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삶에 낙이 없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암을 고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려고요. 암을 어렵게 고치고 나서도 이 선생님의 삶에 낙이 없다고
했는데.....어렵고 힘들게 암을 고치려는 이유가 있나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은
살아달라가 끝났을 텐데요.....생들이 언제 다 참여하여 선생님을 하려면 살라돼 가르쳤는데,

나의 황당하고 괴짜스러운 질문에 소리와 리 선생부인의 얼굴표정이 확 변화 되어
졌습니다. 세상에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소리는
평소에 나의 독특한(?) 성격에 대하여서 알고 있기에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인 그 말을 못하니까... 그 말을 못하니까... 그 말을 못하니까... 그 말을 못하니까...

그러나 질문을 받은 리 선생님은 눈을 감으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
니다. 일반인들은 바로 화를 냈겠지만 아들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깊은 질문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철학적으로 심사 숙고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젠 내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 도 치료를

이것으로 봐서도 암 환자의 특징을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우 분들의 특징은

열심히 아예 내편에 넘어가게 하려 했어. 가본들 원래 하려 했어. 제겨나가뭇말았어. 때문에 방법을

이 선생의 말에는 저는 소리를 쳐다보왔고, 소리는 약간은 당황한 얼굴로 자기 아버지
지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보면서 이 선생님은 조용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안하는 저의 입장에서 도가장 부담없이 순리대로 할 수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 한자

“사실 내 아들은 자랑스럽지만, 개인사업을 한다고 몇 년간 다니던 국가직원(공무원)
원에서 나와서 방향을 하는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있는것같아서 내가 살아있을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꼭 살아야 되네”입니다.

저는 리 선생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 속에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도 아버지를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진료실에 미안한 감정이 흐르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이 선생님의

목소리께서 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치료하겐 애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으시니 방법 원안해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해왔는데 내가 태어난 중국도 다 이해
못해서 중국 여행을 하고 싶네, 평생 같이 살아 준 사랑하는 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여행을 하고 싶네리겠습니다. 내내 하만세포를 우리 의지 이상관없어. 분에 50,000가 저소반을

나와 소리와 리 선생의 부인은 리 선생의 말씀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을 마친
선생님은 조용한 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으키면 저조세포가 시모나와 사과정에 있어 나옴. 위어나는

“평생 삶을 같이 살아준 부인을 위하여 같이 하는 여행을 위해서는 내가 꼭 건강해
져야 되네..... 체포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통하여 들어오는 화학제품과 호흡기관으로 들어오는

“사랑하는 부인을 위한 여행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은 곳에 여행
대행이네요. 이 선생님의 강화를 하려겠습니다. 마리스의 하마에 200이상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음식물에

삶에 뚜렷한 목적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정신면역학에서는
어렵지 않게 면역세포(NK세포)의 활성성을 3~5배 이상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리 선생님처럼 엔돌핀보다 200배 더 강한 디아-엔돌핀(감동의 에너지)를 만들어

했으면 합니다. 이 선생님은 지금 나이도 있어서 억지로 수술과 항암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인터루킨-1과 6번이 증대되어 사이클로옥시지나제-2 (COX-2)라고하는 염증성 효소의 생성을 증가 시키게 됩니다. COX-2수치가 높은 암환자는 그만큼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COX-2은 종양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종양에 부착되어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만드는데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조건에서 수술과 항암을 받지 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일 경우는 암세포의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리 선생님은 앞에 음식과 운동 자체만 조절을 해도 3년안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저는 잠시 후 진료실에 있는 유엠 물을 빈 잔에 따르면서 ...다시 리 선생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 선생님 두 번째는 영-정신-육체가 연결되어지는 면역학 중심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절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발생한 한 것입니다. 정상 세포가 외부적인 요인이 되었든지, 호르몬 또는 노화를 통하여 부실해진 장기에 의하여 발생을 했든지...모든 것은 내부적인 영향이 가장 깊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정신-육체면역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영의 면역학 입니다. 이 부분은 종교를 갖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변화되어지는 뜻으로 마음을 다스리는것을 정신면역학 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 운동 입니다. 근육 운동과 심폐 운동 없이는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에 3KG입니다. 그러나 심장의 펌프와 글루튀라는 진공이 존재하여 40.000KM 혈관이 돌아다니는데 어렵지 않지만 6KG에 해당하는 림프는 펌프가 없습니다. 림프관도 수 만km가 넘어가는데 펌프가 없습니다. 이런 림프액은 우리 몸에 면역과 죽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문제와 60조세포에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너지 대사에 관계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변이가 일어나는 것 입니다.”

잠시 저는 책장 사이에 있는 “기적의물 생명의 물”의 번역본을 꺼내서 이 선생님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앞에 놓여 있는 유엠 돌로 만들어진 유엠 물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말을 시작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돌은 일반적인 세라믹 돌이 아닙니다. 이름은 유엠 이라고 합니다. 일종에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방금 드린 책에는 유엠에 대하여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엠을 개발하신 김현원교수님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책 안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 보시면 많은 부분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책 속의 내용 중에 이 선생님이 드시어야 하는 돌은 “p53정보가 담겨있는 정보 유엠”이라는 정보 유엠 물 입니다. 책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정보 유엠를 통하여 만들어진 물들은 우리 몸에 돌아 다니면서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로 유도 한다는 것 입니다.”

약제실에서 가지고 온 유엠 정보 세라믹과 종양카드를 이선생님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복용방법을 다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유엠 4개를 1000ml 유리병에 넣어서 음용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유효기간이지만 물에 이 물질과 산화 과정 속에서 정보력이 떨어 질 수가 있으니. 2개월에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일 2000~3000cc 음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유엠도 별도로 드립니다. 이것은 식사용도와 국물을 만들 때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처럼 생긴 이것은 공간에너지를 통하여 종양 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에너지 정보가 들어간 것 입니다. 설명은 책에 있으니 천천히 보시고요. 이것을 핸드폰 뒤쪽에 그리고 베게 밑과 냉장고에 부치시면 됩니다 ”

이 선생님의 핸드폰 뒤를 열어 정보카드를 넣고 다시 핸드폰을 이 선생님에게 돌려 주면서 프린트 되어 있는 종이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기록 되어 있는 내용은 암 환자들이 지켜야 할 음식방법과 운동방법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써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암환자는 기본적으로 설탕과 우유, 고기 단백질은 절대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 한 개의 크기를 서안축구장(잠실운동장보다는 약간 작다) 크기로 기준을 하면 고기 단백질의 100만개 단위세포가 몸으로 들어 올 때는 서안축구장 만한 세포입장에서 보면 달과 같은 크기의 단백질이 세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세포에게는 달처럼 엄청난 크기의 영양제(독)로 생각을 해보시면 고기 단백질이 암에게는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그러니 암세포가 얼마나 빨리 성장을 하겠습니까?. 설탕 한 톨도 달 정도의 크기 입니다. 그러니 3가지는 절대 금지 중의 금지이고 나머지 음식도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방법은 긴 호흡방식 입니다. 암세포는 저 산소와 저 체온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뼉치기”를 이용하는 림과 운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생님에게 직접 손뼉치기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 선생님에게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호흡과 손을 올리는 방법...내리면서 호흡하는 방법...등 처음에는 손뼉과 호흡의 박자가 꼬여서 난색을 표했지만 5분이 지나서 올바른 자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물방식 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이와 볼펜을 넘겨주면서 소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에 녹음장치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녹음을 하고. 여기 종이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적어 쓰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듣다 보면 빠진 것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으니. 종이와 볼펜을 자네가 가지지 말고 아버님에게 건너주게. 내가보니 자네 보다 아버님이 더 중국말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

“ㅋㅋㅋㅋㅋ...형님.....한국사람에게 중국 말 못 한다고 말을 들으니 조금 그렇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리들은 쇼리의 어색 말투와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행동에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잠시 진료실은 웃음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한결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암 환우에게 긴장은 가장 안 좋은 생활습관이기도 합니다.

“자~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에 산소와 수소라는 기체를 넣어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암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인 저 산소호흡에 해당계 세포 호흡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즉 암세포는 해당계 세포의 무산소 호흡을 통하여 젖산 발효를 통하여 에너지 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돌려서 암세포의 환경을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수소를 통하여 가수분해와 몸에 활성산소의 자유스러운 전자를 안정화 시켜서 염증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서안에 공기 중에는 산소와 수소에 오염도 높고, 산소 양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수소훈증” “산소훈증”으로 치료 진행을 하겠습니다. 1일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6~10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비타민b17요법과 엑시아 차(복용시 약들과 1시간 이상 간격 필요). 장내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내 염증을 제거하는 막스거슨 박사의 커피관장과 아채스프요법을 진행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부족한 미네랄과 영양분을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셀레늄.B3.종합비타민B군(마그네슘과 아연 염산이 포함된 제품).

마지막으로 폐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폐 세포들의 활동성을 활발하게 해주는 중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처방전은 불감초 60g.곤포.해조.상피.하고초.각 15g.황금.산치자.연교각 9g. 금은화 12g.생석고 30g으로 일일2회 주 5회. 주 2회 휴식하는

방식으로 개월간 복용합니다. 정유엔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활지만 수소 호흡기를 통하여 직접 폐와 뇌, 혈액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중에는 판매하는 것은 서로

저의 이야기를 정리하던 이 선생님은 얼굴에 비장한 각오가 서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광고에 비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네 내가 추천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에 친구들과 오염된 낚시 물에 음식을 조심하시고, 중금속 오염이 많은 지역 피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연구소에 산 채로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을 해체한 후 폐기물 처리에 들어간

“알겠네... 그래도 내가 40년간 교편을 잡고 일을 하던 성격들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나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니 안심해도 됩니다. 내가 성격이 대나무 같거든.....” 결과들이 있으니 이 제품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네”

조용히 옆에 있던 소리가 아버지의 말을 똑 던지는 씩으로 말을 하면서 진료실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 있나요”

“늦은데 나무지.....” 핵심은 거리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100년 전을 생각하면서 식단을 들어가면 “하하하하하” 이상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 식품 회사에서 만든 가공 제품과 향신료는 방부제와 “하하하하하” 할 수 없는 화학 구조로 만들었기에 사용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사용하지 않게 하라. 수도관을 막아줍니다. 수돗물을 등속에서 체와 아버지는 안 하라는

“암에서 가장 큰 장애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버님과 사업 이야기와 가족들간에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 그러다 보면 아버님은 고독하지 않고, 자네는 아버지께 해탈고..... 어떤가 영향을 주겠습니까. 환기를 하면 서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화학제품으로

“형님... 앞으로 아버님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이라는 핑계로 네 월월 아버님과 가족을 하야 중하게 용을 하겠습니다. 허우적쩍 면도 구할 용하사시고요”

소리에 진지한 이야기에 이 선생님이 얼굴은 벌써부터 밝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형님이 이야기 약들은 직구로 구입이 가능한데, 수소 호흡기기는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하하하..... 거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

“네……..” 생존을 위하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조미료와 향신료, 그리고 설탕을 빼고 음식을 주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나요?” “아~~~~~”

“무슨 말인지…”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 요리에 따라서 보통 최소 8종류 기름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기름(식용유), 유채기름, 해바라기 기름,…….등 맞지요” “이제는 폐와

“그럼 나도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최소 3가지 기름을 사용하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

“그러면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콩기름이 미국 수입산이라는 알고 있나요. 특히 G.M.O 유전자 조작 기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유전자조작 기름과 특히 오메가3~6비율이 정상적인 제품들은 1:1.2 이지만 공장에서 가공하는 기름들은 1: 260 정도로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이 260%가 더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에 우리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약들을 줄이면서 간의 “킵~~~~~놀라운 이야기 이군” 면역계통을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키우는 콩밭에는 벌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곤충들도 피하는 유전자 조작 식물 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떨을했는데 담자마자 먹었다는 문헌이 있는데 콩밭에 5개 담자마자 3개,단삼,건삼피,생산사,반자림30g,자전갈5g,

“킵~~~~세상에~~~~삼릉,봉출,대쭈종자각5송,질10g이렇게 해서 만든 북용술이네요”

“집 밖에 식당에서 이 선생님처럼 여행객의 건강을 위하여 미국 유전자 조작 기름까지 신경을 써 줄까요?” ”

“충격적인 이야기네” “알겠네”

“맞습니다. 결국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러한 유전자조작 기름과 식당음식으로 인하여 염증의 농도가 높아지고, 장을 통하여 간으로 염증유발 물질과 유전자 조작된 아미노산들이 간으로 모여드니 간 쪽으로 암세포들이 모여 들 수 밖에 없지요. 암세포들도

“그리고 아침 해독주스에 살구분말을 8g 추가 하여 아침과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동충하초와 한약제 분말 된 것)를 일일3회 1회에 15g씩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메모하던 이 선생님은 많아지는 약 설명을 들으면서 말쑸을 했습니다.

“약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에 해당하는 것은 3개월간만 조절하시면 간과 폐 쪽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 입니다.”

2018년 3월의 봄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희망으로 시작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나이가 있어서 젊은 사람보다는 암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치료하는데 한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의 4월에 이 선생님에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서안에 공기도 안 좋고 해서 잠시 해남도에 있는 친구 집에 요양하러 가려고 하는데, 물론 부인하고 같이 가서 직접 음식을 해먹으니 음식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다녀오세요……..싱싱한 해남도의 해산물에 육심내시면 절대 얹됩니다”

“걱정하지 말게나”

“수소기계와 정보 유엠 그리고 정보카드도 잘 들고 다니시고요”

“정보유엠은 내 생명과 같은 것인데…… 해남도에 친구가 파킨스가 있어서 수소기계로 같이 치료하려고 하는데…좋은지”

“좋은 생각 입니다. 그리고 뇌에 관계 되어지는 정보유엠도 가져가서 친구분과 우정을 나누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내가 오후에 병원에 잠시 들리겠네. 뇌 질환에 좋은 정보유엠과 카드를 준비해주게나 “

“고맙습니다. 이 돌덩어리(뇌 정보유엠)와 수소 훈증기가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권 닥터가 처방해준 미네랄과 비타민종류가 대단하네…….”

“하늘이 팽 선생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시면 됩니다”

“하하하하...그래서 말인데 온 김에 뇌 정보유엠을 몇 개 구입해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네”

“팽 선생님은 사업가 인가 봅니다”

“하하하하...무슨 사업가.....저는 해군으로 정년 퇴임해서 퇴직금이 많이 모여있고, 군에 있을 때 상해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 있는데, 자리가 좋아서 임대료를 조금 넉넉하게 받고 있어서...이번에 좋은 일을 친구들에게 하고 싶어서요. 정보유엠도 널리 홍보도 하고 싶구요”

중국에서는 아파트 정책중에 하나가 땅을 소유했던 농민과 지역 도시민들에게 개발시 아파트를 식구와 토지면적으로 해서 몇 개를 주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 비용도 넉넉해서 불평, 불만이 그만큼 적습니다.

한국처럼 야박(?)하게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임대 하면 소득이 좋습니다. 상해에는 보통 노인들이 집을 3~4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수입원들이 평균 2만원정도(인민비=한화 350만원)....중국 물가 비율로 계산하면 한국돈의 가치성으로 거의 2천만원에 해당하는 돈 입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웃음이 오가는 사이에 이 선생님의 진료카드를 넘겨 받은 저는 자료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권 닥터가 팽 선생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분 소식을 가득 만들어 주었네...그 어렵다는

폐암을 어떻게 치료할지 모르니.....너무 감사하네.정기작동되는 환경,스트레스를 받을 때 포도당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저혈당을 겪어주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암이 있습니 암을 일부분이니 대략 100개 정도가 잘못되었

“해남도가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단 시간 내에 만들었네요...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평생 생각하시면 다시는 암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영혼 될것입니다.정상세포의부산물입니다.그래서우리는암을이기는약이아니고면역력을높이는 잠시는 저는 이 선생님과 팽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양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의식(생각)에 의하여 유지 되어지는 자율신경에 문제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애착, 소유, 분노, 억눌림...등 이러한 스트레스의 작용으로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와 잘못된 식사습관, 화학제품에 익숙해진 현대문명에 오염으로부터 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의 삶에 목적성과 언제 가는 삶이 끝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 삶에 대처하십시오.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가족,

“그것은 우리 나이가 되면 터득하는 삶의 도 인데...젊은 사람이 대단하군먼.....”
팽 선생님과 팽 선생님이 웃으셨습니 친구들이 하얀들어진다.암 마디를 잡아 가는 회”에서 우리가

“팽씨!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권 닥터는 우리 같은 환자들 때문에 겹은 젊어도 속은 모두 타서 늙은 우리와 같을 것 같은데.....”언어지는 건강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하하하하” 잠시 저는 바라보는 어른들을 보면서 살짝 미소를 만들면서 말을 정리 했습니다

“호호호호호”암세포도 사랑하고, 신경세포도 사랑하면서 늘~~행복을 나누는 이웃이 되어
칭찬인지, 농담이 모르는 이야기와 사심 없는 웃음에 진료실에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사실 저의 진료실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웃음이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다시정보유엔물에대하여보충을해주고말을했습니다.주시면세상이한결살맛날것같습니다”

“그래서 암은 CT에서는 사라져 보여도 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암은 종양 덩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은 잘못된 정상세포의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병원문을 나가는 두분 어른들의 밝은 미소로 병원 정문까지 환송하고 저는 하늘을 쳐다 봤습니다. 맑은 하늘위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물 파랑새에게는 언제나 밝음이 있다는 것이 항상 기쁨 입니다. 도시에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또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땃글7

박정원(서울)18.07.31 21:01 선생님 글을 볼때마다 저를 돌아보게도 되고 용기와 자신감도 다시금 생기는것 같습니다^^

손뼉치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이마위쪽으로 손을 올리고 치킨하는데요 호흡과 함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림프운동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및 동영상에 있음 많은 도움이 될거같은데요 어렵겠지요? 박정란(안양)18.07.30 12:22 선생님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wjwj2485@naver.com으로 메일주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원(서울)18.08.01 07:00 이멜 보냈어요. 박정란(안양)18.08.01 11:30 @김현원(서울)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권 선생님 메일이 현재 휴면 상태라 발송이 안되어 휴면 해제 후 재 발송해야 될듯싶습니다. 이송하(서울)18.07.31 19:09 그간 읽은 중에도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2(포항)18.09.20 09:17 항상 감동입니다. 시안의 허준이십니다. 권대희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쉐이시 경찰국장의 간 암 4기

생명의은인인권 닥터를볼 수가 있어서너무 감사합니다

쉐이시 경찰국장의 간 암 4기 #### 2018년 구정이 다가오는 날... 도시는 벌써 설날
기분으로 철문을 내리고 많은 분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 했습니다. 설날 전에 중국인
들에게는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 중의 하나가 설날 앞, 뒤 15일 간격
으로는 병원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 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병원에 가면 1년 내내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 좋
은(?)관습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오지 않아서 닥터에게는 설날 7일전
부터 휴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저 또한 출근해서 설날 보너스 받은 기분으로 그 동안
밀린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정리 하다가 나온 사진 한 장..... 2016년 초가을이 들
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사진은 잔잔한 미소를 만들어 주었던 추억이 떠오른 사진이었
습니다. 이 사진의 이야기는 2014년으로 올라갑니다. 한국 평택에서 농부로써 삶을 살
겠다고 열심히 닭들과 놀기도 하고 실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으
로부터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e-메일의 시작으로 쉐이시(서안에서 4시간 떨어진

북쪽은 작은 시)에 물 과량새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어지요. 직원용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밥을받기

< 권 닥터……내 친한 친구가 말기 암이라고 결과가 나와서 급하게 권 닥터를 만나러 노동자 병원에 갔더니, 한국에 돌아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연락해서 간신히 메일주소를 찾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메일 받는 대로 전화를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2014년 당시에는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하고자 한국 평택에서 귀농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로는 포기하고 돌아와 있지만……그때에는 처음 해보는 귀농 교육 일이라서 농장 일들을 마치고 들어오면 온몸이 지쳐서 메일 확인도 못하고 바로 잠을 자기 때문에 들어온 메일을 몇 일 늦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

메일을 확인한 그날은 비가 오는 관계로 일찍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바로 중국 경찰 공무원인 화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화 형님……잘 지내시었죠. 메일을 이제 확인 해서 지금 전화를 드립니다.” “미안하네. 휴가 받고 한국으로 나갔는데, 귀한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휴가요……땀 엄청 흘리면서 중 노동하고 있습니다” “………….” “나중에 중국에 들어가면 말씀을 드리고요. 말았습니다(사실 중국 생활 했다는 이야기와 어떤 복잡한 암이기에, 한국에 저를 찾습니까?) 귀농실습을 하는 중 이었습니다)저는 자연스럽게 화 사람들이 듣게 된 것 입니다. 저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고 한 손에는 밥을 “암환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의무, 책임성이 너무 강해서 오는 스트레스 입니다” “아~~~~~” “그리고 술과 담배 하냐요?” “술 고래 그리고 담배는 염소처럼 입에 물고 다니네” “그러면 당장 술과 담배를 끊고 면 종류 식사를 모두 금지 할 수 있나요?” “술 담배는 암 진단 받고 바로 끊었고……..면….우리 서북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은 면인데……” “면을 끊지 못하시면 저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화 형님이 후 국장과 의논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음식조절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결정 후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농장에 전화기는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결정 후 전화 해주세요”화를 끝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농장

물어봤습니다 “누군데? 그렇게 심각하게 중국어로 전화 받아요?” “간암 환자라서요”
“간암 ! 권 형이 그러면 의사야!” “………….” 잠시 식당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저를
쳐다보는 눈길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귀농교육을 받고, 닭 농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으니……보통 한국인 입장으로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저를 쳐다보는 동료들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술을 거하게 쏘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저녁 8시에 이곳에
오시면 막걸리와 소주 한잔 하면서 회포나 풀어 봅시다” 그날 이후로 농장에서 신기한
사람으로 통하면서 1년간 평택농장에서 닭들과 놀면서 자연과 보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 속에서 생각들을 다듬어가던 시간들 이었습니다.

(귀농교육을 하던 농장 전경과 닭 농장)

식사 후 QQ(중국에 카톡 전 단계에 문자 채팅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를 열어서
개인 채팅을 시작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7세의 후주평 입니다. 직업은 아실
것이고요…> <그 동안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드시고 있던 약이 있었나요?”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 부터 간 검사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가 많아서………….) <이해 됩니다…………..중국의 일이
책상보다 밥상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하하하하> “하하하하….한국 분인데
중국 전문가라고 화형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년간 간과 췌장에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연장을 쓰라고 하는데……정말 방법이
없나요 ? > <현재 결과에서는…………그렇다고 손을 놓고 하늘나라에 갈수는 없지요.
생명의 소중함을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방법을 제안 해드리겠지만, 사실 이 상태라면

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유언장을 쓰던 수백, 수 천명이 건강을 찾아서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
<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글을 쓰는 것 입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했던 일, 그리고 용서 해야 될 일과 용서 바라는 마음을 글로 써서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것 입니다. 글을 쓰고 있을 때면 아마……..엄청난 눈물이 흐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 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후~~~~~꼭 해야 된다면 꼭 하겠습니다> <2번째는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꼭 하고 싶은 것 3가지만 적어서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으시고 꼭….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한 달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후 선생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지고 있으면 저랑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 선생님 말씀처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적어놓아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인데요………….>
<경찰이라면 공산당원인데…….신앙 생활 해보라는 것이……” <저의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있어서 저도 가끔 절에 갑니다. 중국 법에 종교같은 것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아~그래요………….그러면 제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역학은 3가지 논리가 일치되어야 암 치료가 잘 됩니다. 영-정신-육체 입니다. 육체 면역학은 약물치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면역학은 기쁨과 행복, 긍정심,….이런 종류 입니다. 그리고 영적 면역학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 무게에 영혼이 0.28g 해당된다는 학설도 있지만, 신기하게 뇌에 있는 영이라는 영역에서는 많은 면역계통을 좌우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와 무 종교론을 갖는 사람들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자율신경 쪽으로도 많은 부분이 부교감신경으로 면역활동이 자유스럽게 되어 치료율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작용하는 물리 작용을 하는 치료방법입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을 그대로 하셔야 1달에서 생명이 3달로…….그리고 반년……다시 1년으로 연장되면서 세포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서 암과 동행을 시작을 하는 것 입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모든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먹으면 우리들의 세포가 쓰레기가 됩니다. 암세포는 바이러스와 균 그리고 중금속, 농약, 환경호르몬으로 인하여 발생한 염증들이 DNA 변화를 주어서 불멸의 암 세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암세포는 저 체온과 저 산소의 특징 속에서 생존해 있습니다. 암세포가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후 국장”의 잘못된 습관에 의하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100% 변화된 삶”을 만들지 않으면 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3가지부터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1. 고기 단백질 종류, 우유 관계되는 종류, 밀가루 모든 음식, 식품회사 마크가 있는 모든 제품, 조미료, 식당 음식, 탄산음료, 술, 담배……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 무과당이라고 포장된 모든 식품종류. 콩, 유채, 해바라기 기름과 GMO가 첨가되어진 모든 식품 2. 장과 간의 독성을 빼기 위하여 커피관장을 1일 3~4회. 단 이때 녹 즙을 3~4회 짜서 복용을 하면서 진행 한다. 3. 우리의 몸은 70%는 물, 혈액의 80%는 물……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시작한 곳도 양수라는 물……그러기에 좋은 물을 일일 2000~3000CC를 의무적 복용을 한다. 단

이러한 물건은 한국의 김형원교수님이 개발한 “유엠” 정보 물 외에는 없기에 이것을 구입해서 1000cc물에 유엠을 4개 넣어서 일일 많이 드실수록 좋다 > <모두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엠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제가 한국에 있으니 중국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에서 추가해야 될 것 입니다.

앞으로 면, 밀가루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탄수화물은 20%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중심의 식사로 80%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기름이 0.1%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 허용되는 기름은 올리브와 참기름, 아마 기름만 가능합니다. 단 볶음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밥에는 흰쌀 10% 수수가 30%, 검은 쌀 20% 검은콩 30% 그리고 나머지 잡곡으로 하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면에 사용하는 샴푸와 린스 비누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면문제는 고대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후~~거의 산적 분위기 되어서 집에서 못나겠습니다……..> <산적이요?> <제가 덩치가 크고, 털이 많은데…….거의 고릴라 분위기 입니다> 저의 후 국장님의 말에 그만 빵~터지면서 웃음이 나왔다. 보통 공안국 국장이 되는 분들은 덩치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털이 많으니…….몇일 만 손질을 안 하면 거의 산적 분위기 연출 되는데……..공안국 국장이 산적이 되니……그런 그림을 머리에 그려내니 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계속 웃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책을 보던 동료가 저를 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무슨 일 있나?” “아니네……자네는 내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네” “지금 무엇 하는 것인데?” “중국에 환자와 암 치료 건을 상담 중이라네….” “요즘 농장에서 자네에 대하여 이야기 돌아다니 것 알고 있나?” “무슨 이야기” “별종이래……그리고……이상한 사람이래” “내가 뭐가가

“하하하하…….몇 년이 흐르게 되면 알 것이네……. 조금만 일 마무리하고 자겠으니 조금 불편해도 참아 주시게나~~” 이런 시간들이 췌이시에 물 파랑새의 인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이시 인민병원에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후 국장은 자연스럽게 저와 토론과 상담이 길어졌고 일단은 직장에 휴직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아닌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후 국장은 자기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언장” 작성 후 국장님은 저의 제안으로 가족들 앞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낭송되어진 유언장 앞에서 가족들은 흐르는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해주고, 용서 받았다고 합니다. 후 국장은 그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들과도 이런 이별 아닌 이별을 했고, 이 소문이 작은 췌이시에 퍼지면서 후 국장에게 응원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후 국장에게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변화 되어졌습니다. 지난 경찰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감옥에 넣었던 죄인들 집에 방문하여 가족 보살핌으로 사랑과 관심이 이어져서 산서성 TV 방송까지 출연하는 일명 동네 “스타”까지 연결 되었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말입니다. 치료가 시작되어 10일 되어가면서 후 국장의 몸은 안 좋아지기 시작 했습니다. 극한상황으로 가는 것을 애타게 바라보던 가족들은 저에게 QQ 통신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후 국장님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생각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간에 복수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응급실에 들어가 알부민 처방과 여러 처방전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들을 유기산이 풍부한 식초를 많이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식초에 초산균들이 직접

커피관장 그리고 식초요법, 그리고 아침마다 녹즙을 통하여 진행하는 진료방법과
영양제 방법을 통하여 간에 무리 안가는 방법에서 중점을 두고 시작 했습니다

정보유एम물을 2000~3000ml를 복용을 한다 1일 4회 공복에 녹즙 (브로콜리새싹,
당근,양배추,샐러리.)을 150cc 복용 커피관장 일일900cc 기준으로 1일 3회
실리마린과 셀레늄을 알약으로 복용하고 비타민b12.b6.b1. 비타민d는 주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 시켜 준다. 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일일 2시간씩
강행군 중약을 처방으로 일일2회 복용 (반지련,산두근,전과루,백화사설초,황기 각 30g
포공용,사삼,포산갑 각15g 생감초 12g) 정보카드와 공간카드를 전기제품과 침대, 옷에
수없이 많이 설치 전기정화 장치까지 설치하여 공간자체를 에너지 장으로 바꿈 30일
지나가면서 암이 더 이상 후 국장을 최악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주었습니다. 90kg가 육박하던 후 국장의 체중은 20kg가 빠지면서 오히려 혈당이
안정이 되어서 기분이 좋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후 국장님….당뇨환자의 23%정도
암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정말인가요?> < 암 또한 만성질환으로
혈액이 탁하고 혈류가 천천히 흐르게 되면 세포에 저 체온과 저 산소로 인하여 암세포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지요.> <일단 죽기 전에 인술린 맞던 당뇨 병은 고쳐서 감사하네요>
<하하하하…….아주 긍정적이어서 좋습니다. 혈당만이라도 내린 것이 면역력
회복에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비타민b17을 하루건너 9g을 정맥주사로
진행 하고 하루는 비타민 고용량 C 으로 일일 8G부터 시작하여 주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간이 무리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간에 무리, 안 무리가 어디
있나요?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사를 떠나서 하루 하루를 보너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방법이라도 받을 것이니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제안을

바랍니다.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저에게 이런 관심을 써주신 것만이라도 저와 가족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제가 금지한 음식을 철저히 지켜주시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가버섯-러시아산을 구입해서 82도까지 끓인 후 서서히 1시간 식혀서 매일 400~500cc를 복용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운남성에서 나오는 것은 효능이 없습니다. 꼭. 러시아산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지는 한반도의 날씨는 마음의 포근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평택농장에서 낙엽이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산책을 하면서 보내고 있던 곳에도 이제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후 국장과 인연이 되어진지도 2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2달 동안 암과 줄다리기는 긴장의 연속을 달리고 있었지만 후 국장님만 천하태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성격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 권 닥터는 언제 중국에 들어오나요?> <사실 아직 생각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11년만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렵네요. 같은 한국사람인데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물 접근하는 방식이 저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농장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하하하하...이제 반은 중국사람이 되었으니 중국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어떤지요?> <하하하하하...그래도 태어난 조국이 좋습니다> 참으로 암이라는 것이 요상한 것 같습니다. 자연 존재하는 식물들과 동일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가을 되어지면 모든 곡식과 채소 그리고 나무들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매를 만들어 가듯이 암 세포도 죽으려고 하면 꼭 다른 곳으로 뛰어나는 (전이 형태, 또는 확산 현상)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간혹 치료를 받다가 닥터를 의심하거나 불안한 감정으로 의사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간 관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닥터의 세계에서는 환자들과 감성교류 또는 매뉴얼에 없는 치료방법을 제안을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생각했던.....암의 전이가 3개월만에 일어났습니다. 위로 전이 소견이 나왔습니다. <후 국장님 걱정 않 됩니까?> <왜.....걱정이 않 됩니까?저 또한 인간이기에 죽기 싫죠. 그러나 이것도 저의 운명이라면 순종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참 내~~~도인 다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하루 하루 그냥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 도인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보고요. 일단 소견서 근거하여 아래 내용으로 치료방법을 추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조하고요. 그리고 암세포가 소멸되기 전에 CT에서 암세포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현상도 있지요. 즉 이런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면 “전이”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너무 낙심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치료하고 하루 하루 소중히 살아가봐요)<네~~~~~>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정보 물에 요오드 15방울 떨어드려서 오전, 오후 공복에 복용을 한다 식후에 염증을 제거하고 음식물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세균을 위하여 “은”물을 100ml를 3회에 걸쳐 복용- 은 물 생성 기계는 미국제품으로 추천(당시에는 한국제품이 없었습니다) 과산화수소 요법으로 45일간 진행을 한다. 구입하는 방법과 진행방법은 별도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식용 과산화수소를 복용 할 때는 앞, 뒤 한 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다른 약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물은 정보물을 꼭 이용을 한다. 아침 즈에 민들레(한의학에서는 포공영)을 구입해서 즈으로 내서 추가하고, 쑥과 민들레를 하루 건너 바꾸면서 즈으로 복용. 비파 잎으로 우려낸 물을

염증제거와 항산화 작용에 매우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입니다. 파란색을 띄고 있던 들판이 노란 황금색으로 익어가던 초 가을. 평택의 가을 들판은 옆으로는 작은 강줄기와 어울려서 환상적인 저녁 노을을 만들어서 저는 자주 강둑을 걸으면서 논을 보면서 자연에 생명력을 마음에 담아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음속에 아름다운 가을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아우……화 일세” “화 형님…무슨 일인데, 한국까지 전화하고….국제요금 많이 나옵니다” “하하하하……후 아우에게 이야기를 들었네….고맙네” “들었군요….저도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하하하……겸손하기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네……자네는 우리 중국인에게 생명의 은인이며 자랑스러운 친구이네……” “참…낯 간지럽게 칭찬을…” “무슨 소리인가…….쉐이시에서 포기한 간암 말기 환자를 6개월만에 암의 크기를 깨알만큼 줄여 놓았는데……” “참…깨알보다는 커요……” “하하하하……여하튼 감사하고 고맙네……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지?” “제가 볼 때 지금 치료방법이 후 국장님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우……..중국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후국장 잘 부탁하네” “중국에 아직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요…….” “중국에 들어오면 꼭 쉐이시에게 오게나……” “알겠습니다” 12월25일 성탄절 이틀을 남겨놓고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눈으로 온통 덮여지고 하늘이 아름답게 수채화로 그려지는 농장을 우산을 들고 아무도 걸어간 적 없는 길을 걸어 갔습니다. 뒤 돌아 보아도 걸어온 발자국은 한 사람이지만 나를 업어주고 가는 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상이 그리 외롭지 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눈은……아픈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를 새하얀 눈으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침묵으로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주는 따스함으로 대지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2015년 결국 저는 농부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국장과 화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인 권 닥터를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산적보다는 잘 생겼는데요….” “하하하하하” “저는 2016년에 복직을 합니다. 너무 감사 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권 닥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광 팬이 되었습니다”

“하하하하하….저는 연애인이 아닙니다” “2016년 제가 복직 되어지는 저의 췌이지 공안국에 방문하여 저의 경찰동료들 전체검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도 병원이 있는데…굳이 저의 병원에서………….” “하하하하…………그래도 제가 정식 초청하는 것 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새롭게 부임한 병원에 체면을 세워주고, 병원 매출을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봄에 췌이시에 방문을 하여 “의료 활동”을 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췌이시 공안국에 의료활동하고 남긴 기념 사진 입니다)

댓글5

최윤태(서울)18.05.19 15:30 오랫동안 들러 선생님 글 잘 읽고 갑니다. 늘 감동적인 글 감사합니다. 박정원(서울)18.05.19 21:43 선생님의 글을 보며 저도 마음을 다시금 다잡 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쭙어봅니다 설탕, 밀가루 등은 먹지 않는게 좋은지는 알고있 는데요 설탕 대체로 중국에서 70~80%이상 생산되는 나한과가 100% 주원료인 설탕맛과 유사한 천연감미료. 모그리톨이라고 있는데 이걸 먹어도 될까요? 가급적 먹지 않는 조 리법으로 음식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끔 써봐도 될까 싶을때가 있어 여쭙어봅니다 김영애(부산)18.05.25 18:03 올려주신 글들에서 참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간단한 댓글에 달기가 뭣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 이병준(중국)19.03.14 19:44 감동이네요. 저도 중국에 있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유방암 4기 골반전이

물 파랑새의인연

권대희

중국 시안에서.. 유방암4기 골반전이 권대희(시안)추천 1조회 20517.10.23 11:13

유방암 4기 골반전이

2013년 청도에서 출장 중에 우연히 만났던 조선족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물 파랑새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 11월이 지나가고 12월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을 할 때쯤.....서안에 계시는 김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권 선생님. 혹시 12월 첫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청도에 갈수 있나요?”

평소에 저와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 이지만 한번도 어디 가자고 말씀이 없던 분이데 무턱대고 제안을 하는 것도 이상 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가를 받을수 있는 관계로 아무 조건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여권 복사본을 보내주고, 비행기 탑승 전 까지 저는 청도를 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공항으로 출발 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에서 타서 저는 조용히 김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청도에는 왜 가는지 이야기 해주면 안되나요?...꼭 밑월 여행가는 것 같아서요....ㅋㅋㅋㅋㅋ”

“하하하하.....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다는 것을 권 선생님 얼굴 보면서 마음이 들떠서 이야기를 못 했네요. 사실 청도에서 중국 지역과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2박 3일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종교국과 안정국(한국에 국정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하게 권 선생님을 초빙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과 아무 상관 없는데요.....?”

“하하하...선교사님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에게 건강상담을 받았으면 해서 모시고 가는 것 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필리핀, 인도, 그리스,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실 것 입니다. 건강상담을 잘 부탁 드립니다”

“건강 상담이라면 제가 해드리죠”

“그리고 혹시 세미나도 해줄 수 있나요?”

“배정된 시간은요?”

“내일 오전에 10시에 행사가 모두 끝납니다. 그 후부터 4~5시간 사용 가능 합니다”

“그러면 장소를 변경해서 했으면 합니다. 같은 장소에 세미나 건강 상담하기에는 제가 종교국에 고발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식당 예약을 해놓았으니 그곳에서 이동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안 비행기는 마른 잔디밭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20분 비행시간 동안 세미나 내용을 머리에 정리하기 시작 했습니다.

오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응급 상황 처리에 대한 내용과 간단한 약 처방을 머리 속으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부치고 있는

나를 흠뻑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황포(과거에는 작은 어촌이지만 지금은 큰 항구와 공단이 있어서 발전적인 신 도시입니다)를 지나가면서 청도 해안을 끼고 돌아가는 해변의 도시가 매우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4년전.....갯벌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니 나 또한 중국에서 늙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청도 시내의 호텔에 목사님은 약속 장소로 가고, 나는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하다가 겨울의 청도를 보고 싶어서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도는 1900년도 청나라 말기에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개방이 되어진 곳입니다. 청도 여러 곳에 지금도 제국주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맨홀과 하수구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청도맥주는 독일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청도의 겨울 해변은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긴 해변을 걷다가 독에 앉아서 동쪽 끝을 바라보면서 한반도 생각을 하면서 사색에 잠겼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매섭고 차가운 바람에 온 몸이 얼어서 해변에 있는 것이 초라할 듯 하여 작은 중국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식당에는 몇 가지 음식만 가능하여 청도 특산물 조개볶음과 해삼볶음, 감자채소를 시켜놓고 고량주를 잔에 채웠습니다.

청도는 25년전에 나의 젊은 청춘이 잠시 머물렀던 동네입니다. 수교되기 전부터 홍콩을 통하여 다녔던 중국에서 3번째 체류하게 된 동네입니다. 고량주가 한잔, 한잔 목을 넘어가면서 보고픈 얼굴들과 그때 아련했던 그리운 추억과 아픈 마음들이 술과 같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초라한 술 집이라서 그런지 7시 30분이 넘어가면서 한 쌍만 남고 가게는 허전했습니다. 바다 바람 소리만 문틈으로 들어오면서 그리움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52도 고량주를 모두 마시고 다리가 약간 풀린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나와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얼굴에 화끈거리는 술 기운과 바다바람의 차가움이 얼굴로 스쳐 지나가면서 입에는 저절로 가슴에 담겨 두었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9시에 호텔에 들어와서 술과 그리운 추억에 푹 취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옆을 보니 아직 김 목사님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6시 30분에 2층으로 내려가서 호텔에서 준비한 조식을 먹고 눈이 내린 청도 시내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도는 해변가라 눈이 겨울에 많이 옵니다. 다른 분들은 여름 휴가를 청도로 오지만 저는 청도의 겨울이 더욱 아름다운 도시 인 것 같습니다.

눈 위에서 도시를 감상하고 즐기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권 선생님 호텔에 계시지 않네요?”

“아침 식사하고 산책 중입니다. 목사님 2층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시면 제가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층 호텔식당에 올라가보니 김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푹 들어간 것 보니 밤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 앞자리에 앉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보니.....평소에 농땡이 많이 부려서 혼나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잠자면서 기도 하면 안되나요? 꼭...특이하게 금식과 잠 안자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 인냥 생각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다양성도 있지요. 이 점 권선생님 이해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일단 식사 맛나게 하고요, 면도 좀 하시고요.....저는 먼저 방에 올라가있겠습니다”

“에…………”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사람을 경계하면서 의심을 많아지는 성격을 가졌던

올라가서 짐들을 대충 챙기고, 작은 노트에 건강 세미나 순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올라와서 세면을 하는 동안 방을 정리하고 커피 두 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목사님에게 커피 한잔 권하고 세미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것으로 기억 합니다.

“이정도 되었나요?”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가슴이 상치면 반을 있는데, “에…” 저것이 100% 스트레스로 만들어지만……>

“ 좋습니다.” 이영숙씨는 세미나하는 동안 제 앞에서 저런 불신의 표정으로 무기력하게 앉아 “뭘 사님 청도에 10년 성당이 맞아요?” 두 시간 동안 내뿜어 뱉었습니다. 이 분에게 세미나 체류한 “아니요… 모르는데요 행사 관련이 스포츠레처먼트였지요……. 앞에 세야 하는데…” “그러면 약속 시간까지 4시간 남아있으니 독일 사람들이 만든 성당에 가서 구경하고 약속장소로 들어가지요. 청량강 성당 내에 서히 걸립니다.” 가깝지 않은 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 선생님 청도 잘하세요? 처음 올면서 한편으로 여성분들이 있는 곳 한편을 보면 목사님이 “그냥 여행 동행입니다.” 여행하러 여행객들 같구 생각하면 산타가 왔음 왔지 회여졌던

우리들은 독일 사람이 만든 성당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위한 기도와 조선(중국), 고려(러시아) 한반도 민족에 대해 공동의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2013년 여행 기억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 때도 파괴 하지 않은 성당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상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조국에 감사 드리고 약속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청량 시에 들어가서 한참 후 지정된 식당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각자 삶의 터로 돌아가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 50명이 남았습니다. 이분들은 저와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불안했던 가정들이 이 때 인연이 된 분이 이영숙씨 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 해서 중국에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2013년에는 당뇨로 고생하는 그 분에게 처방전을 주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마침 부다님에 전해줍니다. 이쿠선생님에게요? 저의 허락과 동의가 없는데도

“권 선생님. 2013년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청도에 가서 뵈던 박목사님 사모님…기억하나요?…권 선생님 발표하는데 앞에서 하품한다고 저에게 말씀했던 분…기억

하나요?”“당연히화나죠…그때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당뇨가무서운것은28%이상

“기억하죠…당뇨병과 의식이 많아서 앞으로 박 목사님이 활동하는데 욕을 많이 듣게

됩니다.조산성분…기억합니다.암은병증일어나면숨도쉬고고리외영속씨웁심않고
권생말함날삼겨줬네요.왜성적입니다.대영속씨체상됨부정적으로때문에노병하기

“하하하하…제가말고있습니다…말씀세워합니다.생각은지오날의영속씨에게말씀드리고

“어제 저녁 늦게 박목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유방암 4기에 골반 전이 되었다고 병원
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산 병원에서 조용히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임종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가지…….”

“…….”“…….”“권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니…박 목사에게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없는 것 보니, 2013년 청도 일의 뒤끝이 아직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하하하하…….목사님…제가 목사님처럼 소심하지는 않습니다…….하하하하…….2013년 그 때문은 아니고요, 그분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닌 박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연락한 것도 그렇군요. 본인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 보듯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몰상식한 목사님들은 딱 질색입니다. 목사, 신부, 스님이라는 특정 신분을 통하여 자기 자리 지키고자 하는 야심이 종교인들을 저를 싫어합니다. 박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2013년 청도에서 보여준 모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궁금하고 살고 싶으면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세요…….이것이 사람 사이에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을 그렇게 오히려하십니까?아있네요.쯔쯔쯔”그런말을김목사님에게말씀드리고싶은마음이아프겠습니까?

“지뢰다 아니요?” 부인 마지막으로 향에 속겠다 집안이 넓습니다 다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주 죽으라고 환장을 하네요....그 똥 고집을 끝까지 못 버리는군요”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제

“무슨말인지?”한국산병원과게브란스병원에서검사받았는데같은결과가나왔습니다사실

“동북 심양은 중국에서 미세먼지 2번째, 화학 오염 1위 도시인데. 그곳에 가면 결국 고통스럽게 죽겠다는 것 입니다. 참 내.....박목사님이 많이 힘들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아무런통증도없었고,정기검사라고생각을했는데.....어떤치료를받을수있는상

“일단 제신으로이통증과그고집을하세용이 라고합니다당 의사들이한대검진행하지않아

그리고 전화를 내려 놓고, 답답함을 가지고 휴게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뜨거운 해 빛을 손으로 만지면서 생각에 잠겨 봤습니다. 그 동안 내 손으로 떠나 보낸 암 환자들 그리고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고 있는분들이아직점아무엇일까없다고합니다너무늦었다고합니다그래서인마지막날에향에있고

바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초 긍정 마인드 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믿어주는 마음과 가족, 이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눈빛 이었습니다. 싶다고 해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영숙씨는지금웨신을 할수없는정도로기력이

그런 분들은 나의 80% 이상 생존 지표에 들어갔고, 지식이 많은 교수, 유명한 의사돈이 많은 고집불통 사장, 회장들 처럼 죽음으로 정리한 분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기존 지식과 사회적인 관습과 같은 똥 고집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열린 마음이 없었지요.....열린 마음이 열린 세상을 받아 들인다는 뜻을 이해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2층의 진료실로 내려왔습니다.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날 저녁 웨신으로 친구요정이 들어왔습니다. 박 목사님과 이영숙 공동 웨신 방 이었습니다. <정도 세미나에서 말씀 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군요...>

<안녕하세요? 저의 부부가 권 선생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했다고 김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아직 미숙한 저희 들이기에 넓은

〈6개월은 잘 하다가.....제가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발이 멀쩡한데,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겨야지....목사님이 무슨 책임이 있나요?〉

〈저의 책임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 어떻게 도와 드리기를 바라나요?〉

〈사실....이대로 부인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안으로 내려 오시어서 저와 치료 상담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병마와 싸우려면 공기와 산림이 우거진 연길 또는 장백현(백두산 줄기)에 조 선족이 많은 동네에 가서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영숙씨가 보여준 의 심병과 저돌적인 행동, 누구에게 의탁하는 게으른 성격.....이런 것으로는 절대 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암은 본인의 노력과 투지, 열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세상에는 암을 치료하는 한가지로 구성된 명약은 없습니다. 치료방법은 저의 병원에 방문을 하고 나서 서로 토론하면서 이야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암이 더 이상 급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탕과 고기 단백질 종류, 우유, 미원....등 화학제품과 가공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여성용 샴푸, 화장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몸에서 화학제품을 절대적으로 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부인과 의논하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전화가 들어 왔습니다

“권 선생님. 내일 서안 비행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려도 기차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행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단 기차 안에서 라면과 빵을 드시면 안되니 과일을 많이 가지고 탑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비행기 안되나요?”

“비행기 안에는 지구에서 사용하는 산소와 다른 개념의 산소를 인공적으로 기계를 통하여 만들기 때문에 암환자들은 기내 산소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다시 표를 예매를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생님 말씀대로 부인과 의논을 했더니 친구가 장백현(백두산 줄기)에 있어서 그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공기 좋고 물도 좋고...그곳에는 고구려 유적인 많아서 나중에 권 선생님 한번 방문하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에 선택을 하시었네요”

그리고 4일 지나서 김 목사님에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 지금 박목사님 부부가 1시간후에 북 역으로 도착한다고 하여 마중 나갑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저의 집에 가서 휴식을 하고 내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차 타고 3일만에 왔으니 식사부터 잘 챙겨주시고요. 체력이 회복 되는 데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아~~~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 일을 마치고 김 목사님 집에 가서 저녁 밥 좀 도둑질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김치찌개면 됩니다. 다른 반찬은 만들지 마시고요. 박 목사님 부부들만 불편 없이 챙겨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영숙씨에게는 식초 물을 타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3일간 내려오면서 몸에 누적된 젖산이 빠른 시간 내 풀려서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하하하하.....어려운 반찬 주문 입니다. 일단 고기는 저의 집에 없습니다. 환자가 오기에 저의 부부도 당분간 고기를 밥상에서 치우기로 했습니다. 상추쌈에 된장찌개 입니다.”

“하하하...아주 좋아합니다”

“저녁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면서 치료용 물건을 챙겨 들기 시작 했다. 먼저 환자 보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를 먼저 챙겼습니다. 놓아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유엠 700L에다가 2013년에 제명해줄랬으니까요. 당노치료예본은
종양정보카드물이라고... 그때영숙씨는저에게차에있는것도물이라고고집부렸고저는차와

그리고 유방과 골반전이에 관계되는 비타민과 엘-글루타민(장누수 현상과 면역력,
그리고 면역기능을 높여줍니다)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부리고

버스 타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40분간 회의중심 역전에서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동이루 방향으로 20분간 더 갔습니다. 중국은 한국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통이 장난이 아닙니다.....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이해 못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그래서 한국 분들이 운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여
하중교통혼잡합니다. 거기면세야기하영숙씨를면세유를알아가지않을라고

아파트 앞에서 내려 마트에 들어가서 700L 종양유엠 물을 담을 수 있는 예쁜 물통과
과일지를입하에드폰을어쑤소물면아파트를아갔습니때갈했더바문밖다갔것을합니다.

12월30일인종유리교원했습니다.이날은날연속으로말씀을했습니다.이말이라졌물예3

소박한 집.....언제나 김 목사님의 집은 소박하였습니다. 그 전에 있던 집도 소박하고
새롭게 이사 한 집도 아주 소박한 집 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박목사님 부부가
일어나서 반가운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이영숙씨는 얼굴이 많이 핏색해져
이었고, 서로 악수 하는 순간 내 손으로 차가운 냉기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냉기
였습니다.정보즉암세포를자살로유도하는프로그램이입력된물을드리는것입니다.이물을
“이영숙씨언제이렇게말에되어왔어되겠습니다.통하여본적으로말할것입니다.”

“온 몸에 한기를 느끼면서 살아간지가 10년 이상 되어서.....이제는 별 감각이 없어요”

“여성들몸에가우뮌조영이있습니다.정유를과를피보이영숙씨를면세유를했습니다.이말

저는 말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목사님 사모님이 저녁밥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저는 종양 유엠 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종양 유엠 물을 이영숙씨 앞에

수 있나요? 이 돌덩어리로 저와 같은 암을 고친 근거가 있나요?”

“역시…….그 개 버릇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왔습니다”

저의 험악스러운 말에 주변 분위기가 설렁해지고 주방에 도마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목사님과 사모님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작정하였기에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시면 스스로 연구해서 암 치료제 개발하고 드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영숙씨와 논쟁하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요. 이곳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분과는 저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박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하하하…..권 선생님. 화를 푸시고요. 저의 부인이 한국어를 잘 이해 못해서 그렇니다. 조선족이라도 중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을 해서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족이라도 한족마을에서 생활을 하고 한족사람들과 지내면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의와 행동이 우리와는 틀린 민족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조선족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남편과 살고 있어서 제가 방심하고 신분과약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영숙씨를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저의 생각만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중국어가 편안하시면 중국어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저의 이야기에 이영숙씨 입에서 바로 중국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긴장이 풀어지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못해서 한국어를 하게 되면 온몸이 긴장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저절로 인상 쓰게 되고 온통 머리가 복잡해 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환자의 입장으로써 확실하지 못한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한결 이영숙씨에 대한 오해감정이 풀어지면 서편안하게 중국어로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이해 하나요?”

“말에 영어를 쓰지 않으면 70% 알아듣지만 영어를 쓰면...거의 힘들어요. 글씨는 50%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물의 원리는 간단 합니다. P53이라는 부르는 단어는 세포가 스스로 이상이 있을 때 스스로 자살을 유도하는 단백질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몸의 세포는 각 기관에 따라 틀리지만 1주기, 30일, 몇 년 주기로 세포가 스스로 교체가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 세포인데 암세포에는 P53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되는 명령체계를 여기에 보이는 스티커와 세라믹 돌에 입력을 한 것입니다. 물이 이곳에 접촉되면 그 정보가 물에 기억이 되는 것 입니다. 흡수된 물과 물에 정보가 몸에 들어가서 비 정상세포, 즉 암 세포에 들어가서 자살을 유도하는 것 입니다.”

“아~~~이해가 됩니다.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기 치료와 동일 한 것 인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이것에 대하여 공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현원교수”를 검색하면 김교수님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구매

책을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공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 공부하시기 편안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메모지를 꺼내서 몇 가지 추천 할 만 책들을 적어서 이영숙씨에게 주었습니다. 분위기 한결 부드럽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채소와 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 중심의 무침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 부인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온통 건강에 대한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들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름 날씨에 에어컨 사용을 못하는 관계로 부채 들고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박목사님 부부는 서로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 선생님. 현재 저의 부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맞나요?”

“에....아까 주신 서류에서도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손을 놓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는 것도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같이 산책을 나오자고 한 것은 이영숙씨에게 몇가지 알려드릴 체조가 있어서 나온 것 입니다. 3가지 입니다. 나무 밑에서 하는 손뼉치기 즉 고려 시대에 수박권법으로 무인들이 사용했던 것을 응용하여 만든 것 입니다. 이렇게 소나무 밑에서 제가 하는 방법으로 일일3회 1회에 200회를 계속하시어야 됩니다. 암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저 산소와 저 체온입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온 몸에 땀이 나고 온몸으로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갈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밑에서 손뼉치기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동작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20번도 못하고 이영숙씨는 힘들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하하하하...앞으로는 힘들다고 포기하면, 특급열차 타고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것 입니다. 이 악물고 움직여야 살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살고, 편안하게 누우면 바로 가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와서 대화 하자고 하는 것 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인내가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지요..”

“에.....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심장의 펌프기능을 통하여 혈액 3KG가 매일 신체 전체 순환을 하지만 림프액 6KG는 펌프가 없기 때문에 면역세포, 죽은 세포, 바이러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동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림프 운동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일 30분씩 일일 2~3회를 하시어서 림프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몸에 하수구가 잘 뚫려서 몸이 깨끗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림프 운동 6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 해주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신체 기관의 역할과 흐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상식들이 혼자 암 투병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 투병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여름날의 밤은 이렇게 온통 땀으로 목욕을 하고 내일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는 도시의 불빛에 의하여 별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은하수를 그리면서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이영숙씨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김, 박목사님 내외분들이 저의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어두웠던 이영숙씨는 오늘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을 가지고 저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여러가지잡곡을혼합합니다가장좋은것은새싹을첨가한밥이최고입니다새
“어서오세요”씩이란여러씨앗을물에서불리는것을말은합니다.여름에는12시간겨울에는

서로 간단한 아침 인사를 하고 간호사에게 1시간 진료시간을 빼내고 냉장고에 일반
유엠 물을 3명 앞에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영숙씨는 정보 유엠 물을 테이블에 올려
놓았습니다24시간불리면씨앗에서발아시키는것입니다그것으로밥을하는것인데,그곳에서는
“오늘배변운동했나요?일반적인폴리페놀은10배에서많은것은100배이상분해있다.그때
저앞에이영숙씨환결드러워진얼굴표현을해주었습니다밥물양은중요영양을이용합니다.

“예. 조금 일찍 일어서 손뼉 운동과 림프 운동 6가지 모두 했습니다. 한결 편안하고
호흡하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음식

그리고 제가 미리 인쇄해놓은 자료를 박 목사님 부부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거
기에놓가지지않게되었습니다절대맛있는식으로해내랄것부채를해내소통하여귀
면역까지되낼수있습니다네랄을취하고비타민까지충족하게됩니다.그리고일주일종류,
녹색채소 당근, 양배추를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 방법

3 육체 면역학: 좋은 식생활 습관과 운동방법 그리고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소멸시키는방법을체계적으로말합니다.암을예방교육과대사증000만여명에게부름을시켜서
금지음식 운동을 해야 됩니다. 피부에 선 크림을 바르고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암세포가 성숙하고 세포분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언제나 음식을 조리 할 때
꼭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화장품 사용방법

설탕, 조미료, 화학양념, 고기단백질(생선 조개류 포함), 면, 빵, 고기, 우유, 우유와 관
련된제품산음료,포화지방산,공식문화학성분1%리더가장잠쉬워집니다...절대음식을
쌀밥에혼합되는성분없습니다염색한것을상태로돌려서차안상태로유지합니다신체에어떠한
고량미(수수 천연 비타민B17이 가장 많은 곡류) 20% 이상, 검은 쌀 10%. 검은 콩 10%,

화학제품이라 접근하네요.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걸에 세간을 내다 보니 제복하면 하수준까지
대단히 웃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어서 이영숙씨에게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종이팩을 들고 옆에 앉았어요. 말을 더듬어 간호사에게 공간카드를 넘겨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어제는
“이해되는 데,,,,, 실례가 많아요. 정말 어렵네요. 종양카드만 가지고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 얘기할 수 없어요.”

박 목사님이 고개 까우등 거리면서 답을 하고 있을 때 이영숙씨는 강한 마음을 가진
어투로 말을 했습니다. “후기이고 들어온 공간카드 설명을 해주실 지침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도 좀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종양카드와 마찬가지로 호르몬 치료에 대해 얘기하라고

“하하하하하..... 정말 명쾌한 답입니다. 화학제품도 중요하지만 식사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등이 암 말기 일 때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0.1%가
생존과 직접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방금처럼 이영숙씨는 언제나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옵니다. 이것이 공간카드를 통한 공간과 주변 공간에 보다 나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가 실내를 적시고 있을 때, 간호사가 조용히 옆에 와서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에너지의 하여 몸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부부께 공간카드를 기하듯 써 달라고 이영숙씨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 목사님이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권 선생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올라 오다 보니 환자 등록을 안하고 와서 카드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돈을 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권 선생님...이 카드는 부적과 같은 것
나와 주간호사는 한참 명해있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목사님 부부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우리들만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자를 생각해

“언제 김 목사님이 저의 진료실에 올라오면서 등록하고 올라온 적 있나요? 그리고
주간호사 이야기하는 카드는 등록 카드가 아니고요..... 종양카드와 공간카드를 이야기

돌려야하기 때문에 주기로 했습니다. 황금(중약독서) 중약적치료제) 왕복에 알짜 3개월을 활용부터
 “부적이라는 것도 일종의 공간 에너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개념으로
 물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화폐가 중국에서 유통을 되어도 어느 것은
 신부님 손으로, 어느 것은 스님 손으로, 어느 것은 목사님 손으로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의 형태 이지만 사용에 따라서 종교적인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 입니다. 부
 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이라기보다는 공간 에너지 즉 미세 공간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 복용을 해야 합니다. 최소 1~2년간
 그리고 또 한 장의 종이를 건너 주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는 것 좋습니다.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비타민 B군에 부족함 12점 산셀레늄아연과 그네슘을 추가하여 같이 복용을
 뼈와 유방에 전이 되어진 상태 이기 때문에 일단 저 체온 증세 해결을 위하여 배꼽
 뜸으로 일일 1~2시간을 합니다(단 바닥이 따스하지 않으면 효과가 격감한다) 합니다.
 저 산소증을 위하여 소백치기를 일일 3회 매회 최소 200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취침 전에 생강 물을 끓인 것을 먹으면서 반신욕(족욕)을 40분간 진행을 합니다. 언
 제 체온이 체온보다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황금 산소량 30%, 이산화탄소 30%, 질소 40%,
 림프체조 30분 전 2회 진행을 합니다. 공복 약 2시간 15분과 잠 직전 약 1시간 전
 약물 요법 오전과 오후에 복용을 합니다.

비타민 B17과 C 정맥주사를 진행을 합니다. 단 B17는 포도당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비타민C 12g을 15일간 정맥주사를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분말로 해서 일일 12g 매일
 복용을 합니다. 단 B17는 12주간 2회에 한번 정맥주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2회 정맥비타민 b17을 100mg을 주 2회 그리고 그네슘을 월 1회 250mg을 주 1회
 비타민B1 50 mg와 비타민B12를 1000mg을 주 2회 한달 간 투입을 합니다. 복수 또는
 면역계통을 활성화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D 300,000IU 단위로 월 1회, 3개월간 투입하고
 경구용으로 복용을 합니다. 복용하는 것이 효과 좋습니다. 취침 30분전에 복용을 합니다.

황제호르몬(DHEA)가-3(포도당 1개)를 사용한다. 시판되는 호르몬은 대부분 사탕을 씹는 형태로 되어 있다. (포도당 1개)를 사용한다. 시판되는 호르몬은 대부분 사탕을 씹는 형태로 되어 있다. (포도당 1개)를 사용한다. 시판되는 호르몬은 대부분 사탕을 씹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영숙씨는 약 처방과 병원에서 제조한 약을 들고 서안에 내려 온지 5일만에 다시 심양에서 걸쳐 장백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은 중원을 지나서 산해관을 넘어 백두산 줄기 장백현에서 생활을 시작한지 1달이 되어서 복수가 차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단동(신의주 앞 도시)까지 나와서 천자(복수 빼는 간단한 외과치료방법)를 하고 중약을 추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자...3회에 걸쳐 외출타기를 하면서 본인,

식구들 간담에 안색이 조금 나아졌고, 12월을 이 장백현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동북지역은 이곳보다 영하-20~30도가 더 추워지는 곳 이라서 11월 초에 벌써 온돌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11월 20일부터 산과 들판에 눈이 오는 사진과 한겨울에 산, 계곡 사진 등이 올라왔습니다. 복수가 차면서 커피관장 방법을 일일 2~3회 주 5일 동안 진행을 알려주고 중약 내용에 십전대보탕을 추가하여 떨어지는 체력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바스쿨을 보니 신문의 외과에 소개되어 있는 장님씨였습니다. 위에 작은

12월이 겨울은 참으로 길었습니다.....깊어가는 산속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영숙씨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1월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관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체중의 변화는 간단에게 암세포 증식을 예측 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 5개를 가지고 젖산 발효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해도 살이 빠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상세포에서는 포도당 한 개에 산소 하나가 붙어서 ATP 대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체중이 감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중

은 영양식을 정제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전산할 니침마니에 체중이 있었습니다. 전까지 본문에 1월에 장백현의 산속에서는 생명의 끈질긴 삶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영

받은 선물을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권 선생님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한 시한부 시간을 벌써 5개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 체력의 회복은 모두 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보행과 간단히 주방 일을 도와줄 정도로 영숙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권 선생님 말씀처럼 자연은 알 수 없는 위대한 힘을 우리 몸에 넣어준다는 것을 이 산속에서 5개월간 지내면서 느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에 얽매이기 보다는 하루 하루 자연에서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웨신은 자주 잘 안되어서 하루에 2번만 집 앞에 나무에 올라가서 확인을 합니다. 타잔 놀이 합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살고 있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장뇌삼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3월에서 4월이 넘어가면서 봄이 물씬 풍기는 냉이와 민들레 한 박스가 병원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와~~장백현의 냉이와 민들레의 향기는 온 병동으로 퍼져나갈 정도로 향기와 신선함이 대단하였습니다.

저는 박스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자연의 힘에 다시 감동을 했습니다.

<아~~~~이 정도 향기라면 지금 박목사님 부부가 있는 곳의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 토양 위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영숙씨의 생명이 다시 시작할 만 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냉이에서 이 정도 생명의 향기가 날 정도면...소포가 이곳까지 오려면 최소 5~7일 걸리는데...대단한 생명력을 느껴봅니다. 장백현 겨울 산에 심마니들이 캐어다 주는 산에 버섯과 약제들을 먹고 있는 이영숙씨를 생각하니...좋아지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을 할 수 있게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5월 드디어 즐거운 손님들이 서안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얼굴에 살아 숨쉬는 산악인 처럼 단단한 체력의 박목사님 부부와 도시에 하얀 피부를 가진 김목사님 부부가 10개월만에 자리에 앉아서 검사 데이터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암이 소실이 된 것은 아니지만 원발암에 유방 쪽에는 없어지고, 뼈에 작은 형태로만 보일 뿐이었습

니다.“하하하하하……아직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말기에서 이 정도 회복을 했으니, 이제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는 삶,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런 삶을 산속에서 살아가면 어떤 생활이 될지 모르나 다음을 안 하겠으니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리라” “박목사님…산속 생활은 어떤가요? 한국에 있는 김현원 교수님에게 제게 연락을 놓겠습니다”

저는 박목사님 친한 아이와 형을 만났습니다. 박목사님의 특이한 생활 습관의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자연을 벗삼아 돌아다녔더니….자연은 어머니와 같은 따스함과 생명력을 담아 주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상의해서 내년까지 1년을 더 있기로 했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새로운 유기농법을 주민들과 의논하면서 작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채소와 산에 나물들을 심양과 데렌쪽에 한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농작물에서 생산한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영숙씨는 어떤가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김현원 교수님의 책들을 모두 보고 추천해주신 책들을 모두 보고 나서 암과 건강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성경까지 내 마음에 담아서 이제는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하여 하루가 늘 즐겁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교수님 책을 독해 하다 보니 한국말을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저에게는 그 동안 약점 이었던 한국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전을 부쳐주신 박목사님에게 감사 드리고 한국에 계시는 김현원 교수님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한국에 가면 꼭 김현원 교수님에게

이~~동토의 하늘에는 나뭇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회가 좋고 경제발전에 근거하여 돈 자랑보다는 사람중심, 인간중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명, 사회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중심이 되지 못하는 의료활동과 의료기계들은 사람을 두 번 죽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따스한 웃음이 가득한 물 파랑새의 사랑을 기대하며.....

장백현으로 들어가서 가을 맞이하고 있는 박목사님으로부터 또 소포가 들어왔습니다. 향기가 가득한 버섯들....그리고 편지 한 장.....그 편지 한 장에는 또 다른 물 파랑새의 인연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댓글5추천 김현원(서울)17.10.23 18:41 첫댓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발자인 제가 할수없는 대단한 일을 권대희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권대희(시안)작성자 17.10.25 17:52 저는 늘 김교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에는 올리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있으니 모두 김교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현(서울)17.10.27 11:16 림프체조는 어떤건지궁금하네요 최윤택(서울)17.10.27 18:52 정말 늘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영승(경남)17.11.18 23:33 _0_